

# 전남 쌀 생산량 50년만에 최저... 수매가 살아싸움 예고

68만7812t...전년비 5.1% 감소 발표  
광주·전남 농협 벼 수매량 감소 추세  
농민들 “올 생산량 30% 이상 급감  
정부, 수매가 올리고 재해 보상해야”

올해 전남 쌀 생산량이 70만을 밀돌며 1970년 이후 5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초 산지 쌀값(80kg 정곡)은 1년 전보다 13.7%(2만5876원) 오른 가운데 올해 수매가를 두고 농정당국과 농민 사이 팽팽한 살아싸움이 예견된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올해 생산량은 68만7812t으로 1년 전(72만5094t)보다 3만7282t(-5.1%) 감소했다. 이는 지난 1970년(63만7030t) 이후 50년 만에 가장 적은 수확량이다. 생산량이 70만을 밀뚫은 것은 1980년(68만9442t) 이후 40년 만이다.

전남 쌀 생산량은 전체의 5분의 1 가량(19.6%)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충남(67만8000t), 전북(55만6000t)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 생산량은 2만2700t으로, 지난해보다 8%(-1963t) 감소했다.

전국 쌀 생산량은 350만7000t으로 지난해(374만4000t)보다 6.4% 줄었다. 이는 통일벼 보급 등이 이뤄지기 전으로 쌀 생산량이 적었던 1968년(320만t)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처럼 올해 쌀 생산량이 기록적으로 감소한 데는 50일 넘게 내린 장마와 세 차례에 걸친 태풍의 영향 때문이다. 통계청은 지난 달 전남 쌀 생산량이 0.2%(1500t)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조사 기간(9월 중순) 이후 쌀 낱알이 제대로 익지 못하면서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

전남 벼 재배면적은 2106ha(1.4%) 증가했지만 10a(1000㎡)당 생산량은 6.4%(-30kg) 감소한 441kg으로 집계됐다.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올해 농협 벼 수매량도 소폭 줄어드는 추세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난 9월 기준 농협 수매량은 17만5000t으로, 1년 전보다 2.8%(-5000t) 적다. 같은 기간 전국 수매량은 전년 121만1000t에서 올해 107만4000t으로 13만7000t(-11.3%) 모자라다. 농협 측은 수매량이 연말까지 10~15%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쌀 생산량이 크게 줄고 쌀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농민들 사이에서는 올해 40kg 원료곡 수매가를 8만원까지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40kg 원료곡 수매가는 6만1600원으로, 올해는 9~10%(5400~6400원) 가량 오른 6만7000~6만8000원 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66억원 적자영업을 한 광주·전남지역 17개 미국중합처리장(RPC) 입장에서는 수매가 인상이 적지 않은 부담이다.

지난 2017년 말 벼 수매가(40kg)는 유례 없이



올해 전남 쌀 생산량이 70만을 밀돌며 50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일 공공비축미곡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북광주농협. <농협 광주본부 제공>

떨어져 4만~4만2000원 선을 이뤘지만 이듬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수매가는 50% 뚝 6만~6만2000원이 됐다. 수매가는 올랐지만 쌀값은 오르지 않았고 공장 운영비, 포장재, 인건비 등 지출로 인한 적자는 RPC가 떠안게 됐다.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값(80kg 정곡)은 21만5404원으로, 1년 전(18만9528원)보다 13.7%(2만5876원) 올랐다.

한편 연말까지 진행되는 전남지역 공공비축미곡

입 계획량은 벼 기준 12만3000t으로, 전국(48만6000t)의 25.4%에 이른다.

공공비축미곡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바로 환산한 가격으로, 지난해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6만5750원을 지급했다. 올해도 매입 직후 40kg 포대당 3만원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남 쌀 생산량이 5% 줄었다는 발표는 현장 상황(최대 30% 감소)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통계”라며 “논농사 70%가 임차농이고 최악의 흉년에 처한 쌀농민들에게 쌀재해지원금을 특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지 쌀값이 오르고 산지에서 곡물업자들이 원료곡 확보에 혈안이 됐다”며 “당장의 쌀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부 재고미를 시장에 방출한다면 이는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등록금 납부 이벤트 시상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가운데)은 최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2020년 2학기 등록금 납부 이벤트' 당첨고객 402명 가운데 1등(1명)에게는 장학금 200만원, 2등(2명)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 전력거래소, 재난·재해 대비 위성망 구축 추진

전력거래소는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위성망을 활용한 급전전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급전전환은 발·변전소에 발전기의 기동·정지나 차단기 조작 등과 같은 급전지시가 이뤄지는 중요 설비를 말한다.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급전지시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된다.

전력거래소는 위성급전전환을 구축해 급전전환

망을 기존 유선급전전화와 다중 운영할 계획이다.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위성망 활용 급전전환시스템에서 전력거래소는 전용 주파수 인대를 통해 위성중심국을 운영한다. 위성중심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이 완료된다.

전력거래소 정보기술처 관계자는 “급전전환시스템이 구축되면 안정적인 계통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4인 가족 김장비용, 29만8565원

aT, 13개 품목 전국 가격 조사

이달 초 4인 가족 김장비용이 한 주 전보다 1만원 정도 떨어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1일 4인 가족 기준(배추 20포기) 김장재료 구입비용이 29만8565원으로, 한 주 전보다 1만565원(-3.4%) 하락했다고 12일 밝혔다.

양념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날 기준 김장비용은 1년 전(28만9648원)보다는 3.1% 올랐다.

이는 aT가 지난 4~11일 김장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13개 품목에 대해 전국 19개 지역의 전통시장 18곳과 대형유통업체 27곳을 조사한 결과다.

품목별 가격을 보면 출하량이 늘어난 배추·무와 생강이 하락했고 생육이 부진한 쪽파와 아직 출하량이 많지 않은 것은 오름세를 보였다.

배추 20포기는 지난 11일 6만7421원으로 전주 대비 15.6%, 무 10개는 2만750원으로 14.3% 내려갔다. 흙생강 120g은 12.7% 하락한 1083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쪽파 2.4kg은 1만5827원으로 전주보다 17.4% 올랐다.

갓 2.6kg은 1만979원으로 9.7%, 굴 2kg은 4만3511원으로 7.1% 상승했다.

주재료인 배추(-21.6%)·무(-20.8%) 가격은 내려갔지만, 고춧가루(34.8%)·간마늘(39.6%)·대파(42.7%) 등 양념채소류가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 올 3분기 연속 흑자행진

자유가 기조에 영업익 2조3322억...전년보다 88.2% 증가

자유가 영향으로 한국전력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무려 2조8000억원 증가한 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전 측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내세우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 의지를 다시 밝혔다. 한전은 올 3분기(7~9월)에 연결기준으로 매출 15조7113억원, 영업이익 2조332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12일 발표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1.2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배 가까이(88.2%) 늘었다.

2018년(-2080억원)과 2019년(-1조2765억원) 2년 연속 적자를 냈던 한전은 올해 들어 1~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내리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왔다. 이로써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1~9월)은 43조8770억원, 영업이익은 3조1526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지난해보다 3546억원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2조8419억원 늘었다.

한전의 이런 실적은 최근 3년간 최고 실적이다. 이는 자유가 기조 덕분에, 발전자회사 연료비와 민간발전사로부터 구매한 전력비용을 지난해보다

3조9000억원 아꼈다. 하지만 긴 장마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기판매 수익이 4000억원 감소했다.

한전 측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해 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시사했다. /백희준 기자 bhj@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75.62 (-10.25)
↑ 코스닥	840.08 (+0.18)
↓ 금리(국고채 3년)	0.969 (-0.020)
↑ 환율(USD)	1114.80 (+4.80)